

—OMS 의 역사를 아우르며—

제 3 회 한일공동역사연구 보고

복음에 의한 화해(和解)위원 · 미야자키 호마레(宮崎譽)목사

7월 12-13일에 제3회 한일공동역사연구회가, 닛코(日光)의 올리브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17명, 일본 14명 참가)



개회예배 설교는 고야 히후미(郷家一二三) 일본 홀리네스교단 위원장이 해 주었습니다. 고야 목사는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데 왜 고통으로 가득 찬 인류의 역사가 있는가를 물으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롬 9-11)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눈이 열렸을 때, 역사를 이성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넘어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3-36). 비판적으로 역사를 주시하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기를 바라며 공동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OMS 역사를 아우르며”입니다. 야스이 키요시(安井聖)목사는 1911년에 나카다쥬지(中田重治)와 카우만이 지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성교단(聖教團)사건’을 세심하게 묘사했습니다. 아사아 전 지역을 선교의 시야로 놓고, 경성성서학원의 창립을 바라는 카우만과 길보른에 대해서 나카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본 홀리네스가 교회의 지도권을 스스로 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원만한 해결이라고 공포되었지만, 얼마 후에 카우만과 길보른이 나카다의 완고한 자세에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야스

이 목사는 분석했습니다.

허명섭 목사는 한국성결교회의 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성결교회의 중앙조직은 감독제도, 고문제도, 이사회제도, 총회 및 이사장제도로 변천하였습니다. E·A·길보른은 정주하는 지도자의 필요를 느껴, 1910년 11월에 영국인 존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반일감정이 강한 한국에서는 정주할 구미(歐米)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언어습득으로 힘들어 해, 두 번째 감독인 W·헤슬롭도 아내의 병으로 1년 만에 귀국할 수 밖에 없게 되어, 1921년에 길보른이 한국의 감독이 되었지만 그도 카우만의 소천으로 공석이 된 동양선교회 총재에 취임하게 되어서, 한국성결교회는 감독제에서 이사회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사회제도가 되고 나서도 선교사에 의한 지도는 계속되어 1941년에 이사회가 제 1회 총회를 소집하고, 제 2회 총회부터는 전자급(全自給)을 실행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박찬희 목사는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교리 형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명직 목사가 성결교회의 신앙을 대변하는 기관지 『활천』의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교단 밖에서는 성결복음이 이단이 아니라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교단내에서는 건전한 신앙을 양성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활천』에는 A·M·힐스의 번역 등 일본 홀리네스 교회에서도 잘 읽혀지던 것도 게재되어, 발제에서 묘사된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성화론은 일본의 성화론과 중복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찬희 목사의 세심한 분석으로는, 초기성결론의 특징은 ‘마음의 성결’이 존재론적 성화를 기초로 해 그 죄성을 하나님 형상의 왜곡과 파괴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웨슬레가 초대교회의 동방신학의 관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존재론적 구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기독교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비(빌 2:6-11)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여겨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까지 내려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려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S·다쿱 선교사는 OMS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최근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히라노 신지(平野信二)목사의 발제 “한국합병과 홀리네스교회”는 『리바이벌』 8월 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해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배본철 교수와 나리타 공항에서 닛코까지 가는 약 3 시간 동안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배교수는 성결교회의 교단분열과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성결교단은 세계교회협의회와 교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1962년). 배교수는 양 교단이 화해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화해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도, 분열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화해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본철 교수는 화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의 대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책임 고백 문장이 고백하는 죄는 전쟁에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홀리네스교회의 분단시에 범한 죄도 명기되어 그 회개의 토대가 되는 복음이해로서 화해론이 있고, 나카다 쥬지의 선교 100주년의 해에는 나뉘어 있던 홀리네스계 제교파가 모여, 주의 몸으로서 성찬을 함께 축복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교수는 깊이 공감하며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9), 이것이 우리의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